매쉬업 백엔드팀

2日2日日10日2日 1日二世



안녕하세요!

1차 모임은 어떠셨나요?

1차 모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응답수 6명/18명

팀모임 아쉬운 점

아이스브레이킹 팀 이외에 교류가 없었던 접 팀을 여러 번 섞었으면 다 같이 친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게임을 두 가지 이상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사진을 못 남겨서 아쉬웠다.

팀모임 좋았던 점

게임도 재밌었고 뒤풀이도 재밌었다.

만 어색하게 잘 놀 수 있었다.

게임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준비를 많이 한 걸 느꼈다.

성공적인 아이스브레이킹이었다.

질문사함

사유 결석비가 너무 쎈 것 같다.

사유 결석비에 관해서는 신입 기수도 함께 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과제 제출 유무가 아닌 지목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과제 제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공지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번에 게임할 때는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사유 결석비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경조사, 시험, 면접의 이유로 사유 결석에 관한 결석비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터디룸 예약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스터디름 예약비는 부담합니다.

사유 결석에서 건강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터디룸 예약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2. 지목 벌금비의 불합리성

지목의 유무가 아닌 <u>과제 제출의 유무(Pull Request)로</u> 변경합니다. 과제 제출은 모임 시각 전까지로 공지합니다.

질문 3. 전체가 할 수 있는 게임

팀을 섞어 자유롭게 진진가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오래 끌면 지루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적어 다른 팀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봤습니다! 백엔드팀 엘티 등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회교도

빠질 수 없겠죠~?

팀장, 부팀장 회고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바빠 깜빡 사진을 못 찍은 점이 아쉬웠다. 여건이 안된다면 백엔드팀 팀원분들에게 부탁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자! 아이스브레이킹과 10분 세미나 주제로 단체방의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는 걸 느꼈다. 앞으로 추억이 가득한 매쉬업 백엔드팀 9기가 됐으면 좋겠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에 봐요.